

ICT 기술을 활용한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목소리의 특징 규명

최관해(중원대학교), 이범주(영동소방서), 조동욱(충북도립대학교)

choegh93@naver.com, stegnography@korea.kr, ducho@cpu.ac.kr

Characterization of Male and Female Announcer Voices Using ICT

Gwan-Hae Choi(Jungwon Univ.), Bum-Joo Lee(Yongdong Fire stations), Dong-Uk Cho*(Chungbuk Provincial Univ.)

요 약

아나운서는 올바른 표준말을 사용하여 고지사항을 전달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의 음성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ICT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I. 서 론

아나운서는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매스 미디어의 중추적 기능의 하나인 정보전달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간판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맞는 폭넓은 교양과 지식, 표준한국어를 포함한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늘날 뉴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아나운서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1].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표준말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ICT기술을 활용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실험에 사용되는 음성과 분석 요소

표준말을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음성 분석을 위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남성 아나운서(KBS[2] 10명, SBS[3] 6명, MBC[4] 5명, JTBC 5명, 채널A 4명) 총 30명과 여성 아나운서(KBS 10명, SBS 6명, MBC 8명, JTBC 3명, 채널A 3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음원을 추출하여 음성 전문 분석기기인 Praat를 이용하여 아나운서의 음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요소로는 음높이, 강도, 지터, 짐머, NHR, 발화속도 등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III. 아나운서 음성 분석 결과

아래 그림 1은 남성 아나운서 데이터 평균에 가까운 A 아나운서, 그림 2는 여성 아나운서 데이터 평균에 가까운 B 아나운서의 음성파일을 각각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에너지와 음성의 높이를 나타내었다. 그림1과 2에서 녹색 그래프는 음성에너지, 파란색 그래프는 음성의 높이를 각각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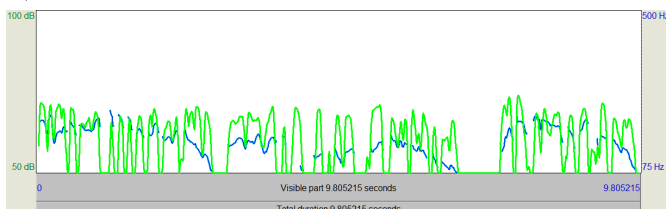


그림1. 남성(A 아나운서)의 음성에너지 및 음성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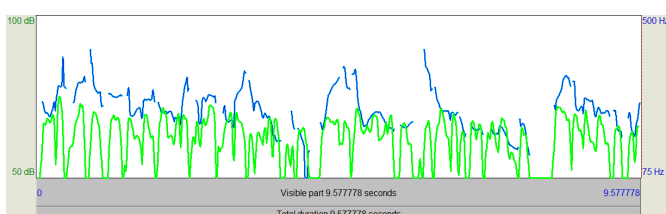


그림 2. 여성(B 아나운서)의 음성에너지 및 음성 높이

아래 표 1은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각 30명 총 60명에 대한 음성 특성 평균값을 분석한 자료이고, 표 2는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각 30명 총 60명에 대한 음색 및 발화속도 평균값을 나타낸 자료이다.

표1.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각 30명에 대한 음성특성 평균값

	Pitch mean	Pitch median	Pitch min	Pitch max	편차
남성 아나운서	173.198	173.439	83.286	284.836	201.55
여성 아나운서	253.832	248.839	116.973	413.382	296.409

표2.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각 30명에 대한 음색 및 발화속도 평균값

	Intensity	Jitter	Shimmer	NHR	발화속도
남성 아나운서	65.04	2.166	1.022	0.194	360.638
여성 아나운서	64.486	1.753	0.859	0.135	356.804

IV. 고찰 및 결론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모두 음의 에너지나 발화속도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 결과, 그 만큼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가 표준어를 잘 사용하며 적절한 강도와 속도로 대중들에게 뉴스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음높이 같은 경우 여성 특성상 여성 아나운서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그 편차 또한 여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말의 서두와 결미를 올려서 말하는 경향 때문에 음높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운서의 음색(Jitter, Shimmer, NHR)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화롭다고 부드럽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남성이 뉴스를 리드, 여성이 조력자 역할을 하다 보니 남성이 뉴스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높은 부담감과 여성보다 많은 분량으로 음색이 여성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가 분량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보다 나은 음성으로 뉴스 프로그램 진행과 공신력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아나운서의 음성 특징을 규명하여 어떻게 하면 더 호소력 짙고 신뢰가 가는 음성으로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161&cid=42192&categoryId=42207>
- [2] KBS 뉴스 <http://news.kbs.co.kr/common/main.html>
- [3]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newsMain.do>
- [4] MBC 뉴스 http://imnews.imbc.com/index_pc.html